

우리들의 일상 속 '성평등 가치' 확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국 성평등콘텐츠대상 정기 공모전 시상식
 도내 40건 작품 접수... '올림픽, 성별이 중요한가요?' 등 수상작 선정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4일 센터 내 문화공간 소소담(談)에서 '제4회 2020 전국 성평등콘텐츠대상 정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초·중·고·대학생 및 성인 등 폭넓은 연령층의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일상 속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 타파 및 폭력 예방 가치 등을 콘텐츠로 발광하는 전국 단위 행사다.
 지난 4월~5월에 걸쳐 전국에서 접수된 '총 375건'의 콘텐츠를 대상으로 1~3차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57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모두 성평등 콘텐츠 플랫폼 '젠더온(http://genderon.kigepe.or.kr)'에 탑재돼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전북 지역은 총 40건의 작품이 접수돼 서울(100건), 경기(64건)지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출품작 중 '올림픽,

성별이 중요한가요?' (일반부)가 우수상에 '나도 모르게 상처주는 말 '미망인'과 'SHERO와 HERO' (청소년부)가 특선에 선정되는 등 총 3편이 한국여성성평등교육진흥원 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상에는 '세계 속, 성(性)공 시대' (일반부)가 최우수상을, '대학 내 성평등을 위한 실천 방안' (일반부)이 우수상, '그 입 좀 잠가주세요' (일반부)가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모전에 참여해 최우수상을 받은 문유진 씨는 "공모전 참여를 위해 인도, 스웨덴,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성평등 교육이나 정책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일상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는 데 적극 동참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운애 센터장은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모전을 통해 일상 속 성평등 가치를



4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내 문화공간 소소담(談)에서 '제4회 2020 전국 성평등콘텐츠대상 정기 공모전'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확산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되고, 또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성평등'을 표현하며 그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장은성 기자

남원의 모습, 그림으로

남원다움관, 내달 2일부터
 어반스케치 체험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는 남원다움관에서 9월 2일부터 23일 까지 매주 수요일 남원의 모습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어반스케치 체험프로그램 '그리다, 나의 남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가와 남원다움관이 위치한 고생지역에서 관광무원, 남원예촌, 구도심 등을 함께 거닐며 풍경과 함께 주변의 이야기와 추억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전문가로부터 드로잉 기초교육(1주차)을 받고 현장실습(2~4주차)을 통해 사라질지 모르는 남원 풍경을 그림 기록으로 남기게 되며, 결과물은 남원다움관 보존 및 기획 전시, 그림엽서 등을 통해 콘텐츠로 다시 공개되며, 만14세 이상 남원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접수는 남원다움관 현장 및 유선(063-620-5671)으로 신청하면 된다.
 남원다움관(남원시 검멀리길 14)은 관광무원, 남원예촌 등 남원의 주요관광지와 근접해 있어 연계관광이 가능한 남원 근현대 기록전시 및 각종 체험콘텐츠로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태권도원서 10~18일 중3·고3 학생 대상 태권도대회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대한민국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와 함께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제50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및 '제17회 대한태권도협회장배 전국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를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학생 선수들이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과 함께 대회 입상실적이 필수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반기에 계획된 각종 태권도 대회와 전국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이 취소·연기되어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 및 가족들이 애를 태워 왔다. 이번 대회는 진학을 앞둔 태권도 학생선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기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단은 대회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전북도, 무주군 등과 함께 방역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당일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지도자·심판 등 관계자 만 T1 경기장 출입이 가능하다. 선수 가족과 지인 등은 입장이 불가하고 특히,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자택, 학교 등으로 당일 귀가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장 출입 시에는 개인 발열 확인 및 소독, 경기 진행 중에도 2시간마다 T1 경기장 내부 방역, 대회 1주 전부터의 체온 측정 기록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태권도진흥재단·대한민국태권도협회·전북도·무주군·방역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진행 및 방역 관련 상황 공유, 협조 등을 위해 태권도원에서 회의를 가졌다. /무주=전문성 기자

부안교육문화회관, 8월 '토요 시네마 라이브러리'

부안교육문화회관(관장 이병노)은 8월 장마와 더위로 심신이 지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영화 3편을 선정·상영한다고 밝혔다.
 '8월 토요 시네마 라이브러리' 상영작은 △8일 알라딘 △22일 마이펫의 이중생활2 △29일 인크레더블2 등이다.
 영화는 광복절(15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8일, 22일, 29일) 오후 3시 부안교육문화회관 1층 시청각실에서 무료로 상영될 예정이다.

부안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영관 내 고위험자 출입제한, 이용자 간 거리두기,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회관 홈페이지(https://lib.jbc.go.kr/bec) 또는 전화(063-580-1360)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기억하지 않으면 잊혀진다 | 창작음악극 '꽃 찾으러 왔단다'

14일 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서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 크로스오버 그룹 '모던판소리(대표 송봉금)'가 오는 14일(금)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창작 음악극 '꽃 찾으러 왔단다'를 선보인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외치는 평화의 목소리인 이번 공연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지원하는 2020년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1991년 8월 14일은故 김학순 할머니(1924~1997)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한 날로 일본군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날이다.
 그 후 할머니들의 당당하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2018년 정부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 인권 증진을 위해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이에 모던판소리는 역사를 바꾼 증언과 위안부 문제를 잊지 않고자 8월 14일을 공연일로 선정했다.
 전통놀이인 '우리 집에 왜 왔니'가 일본의 놀이노래 '하나이치몬메(花-もんめ)'와 유사하며, '꽃 찾으러 왔단다' 가사에서 '꽃'이 위안부를 가리킨다는 주장이 화제에서 제기된 사실이 있다. 또한, 일제가 위안부



'꽃 찾으러 왔단다' 출연 배우들

모집을 정당화하기 위해 당시 식민지 조선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노래를 유포했는데, 우리나라가 역사적 유래를 모른 채 이 노래를 교과서에 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교육부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에 근거해 '꽃 찾으러 왔단다'로 작품의 제목으로 정했다.
 본 공연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과거의 끝난 역사가 아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살아있는 오늘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자 한다. 또한, 성적 착취 장면을 배제하고, 소녀들의 아름다웠던 일상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할머니들의

아픔을 자극적으로 재현해 관객의 분노를 의도적으로 끌어내기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고자 했다.
 공연의 연출은 송봉금, 대본은 안선우 작가가 맡았으며, 배우는 진은영, 김다송, 김수빈, 전태경이 출연한다.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은 송봉금은 "위안부 문제는 광복 후에도 오랜 세월 은폐되고 부정돼왔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의 삶과도 연결돼 있으며, 미래에도 닿아있기에 지역의 청년 예술인이 모여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본부